

한구절
묵 상



2026.7/8

한 구절 묵상은 무엇인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성경은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한 구절 묵상은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매일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한 구절 묵상은 3년 1독 커리큘럼으로 매일 성경을 1장씩 읽어가며, 그 중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은혜를 누리고,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 1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에 따라 매일 1장 읽기에 도전해 보세요.
3년과정으로 3년에 성경 1독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 2 오늘의 한 구절 말씀을 묵상노트를 활용하여 개인 묵상해 보세요.
- 3 새벽기도회 말씀을 통해 한 구절 묵상 본문의 배경과 맥락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보세요.
- 4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을 따라 가정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려보세요.
- 5 다락방 모임과 청년부 순모임에서 한 구절 묵상의 은혜를 나뉘보세요.
- 6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구절 묵상의 개인 묵상과 은혜를 나뉘보세요.

한 구절 묵상 3년과정 커리큘럼

	1년	2년	3년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사사기	여호수아 / 롯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	욥기 / 시편1	잠언 / 시편2	전도서 아가 / 시편3
선지서	이사야 호세아 요엘 / 아모스 오바다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요나 / 미가 / 나훔 하박국 /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학개 / 스가랴 말라기
복음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바울서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 빌레몬서
일반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2,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 1 3년간 한 구절 묵상 커리큘럼을 따라 묵상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 2 커리큘럼은 매일 성경 1장 분량씩 진행됩니다.
*묵상이 어려운 본문(인구조사, 족보, 성막제작, 열왕심판 등)은 묶어서 함께 묵상합니다.
- 3 3년 커리큘럼에 맞춰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이 집필됩니다.
- 4 한 구절 묵상 핸드북은 격월로 마지막 주 주일에 배부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핸드북 PDF를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묵상」 이렇게 묵상하세요.

① 기도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말씀의 은혜를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② 본문읽기

묵상구절을
두세 번 읽으십시오.

③ 묵상하기

본문의 의미를 곱씹어 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한 구절 묵상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묵상할 수
있습니다.

7/1
수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오늘의 본문 | 이사야 1장

이사야 선지자는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만 지내는 이스라엘을 향해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1장 17절

[개역개정]

17 선행을 배우며 경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새번역]

17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경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한 구절 묵상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와 절기와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가 가짜여서가 아닙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제사가 아니라 선행을 배우라고 명하십니다. 경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는 방향입니다. 예배가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삶의 일치를 원하십니다.

8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② 예배할 때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예배의 자리에서 결심한 것들이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9

④ 묵상노트

질문에 따라 묵상한 후
적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⑤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보십시오.
제공되는 기도문을 따라
기도해도 좋습니다.

⑥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오늘의 본문(1장 분량)을
읽고 묵상해보세요.



「한 구절 가정예배」 소개

① 우리가족 말씀 나눔

온 가족이 지난 한 주 우리가 묵상한 한 구절 본문을 읽는 시간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요시아, 느헤미야, 에스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회중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함께 읽는 성경 읽기는 그 자체로 큰 힘이 있습니다.

목상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성경의 깊은 메시지를 더욱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나눔 질문을 돕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나눔 질문이 나오게 된 과정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51:8-21, 새번역]

- 18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 19 거짓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 20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 21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이사가야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쁜 것을 좋다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세상의 분위기를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비슷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무엇이 옳은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가정, 선을 선이라 말하고 악을 악이라 분별하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18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헷갈리거나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19

②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말씀을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을 나누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나눔을 통해 묵상이 풍부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③ 온 가족 감사 나눔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감사를 나눌 때 은혜는 배가 됩니다.

④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대화를 통해 생긴 기도의 제목과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매주 대표를 정해 기도하기, 가족이 돌아가며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만 지내는 이스라엘을 향해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1장 17절

[개역개정]

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새번역]

17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한 구절 묵상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와 절기와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가 가짜여서가 아닙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제사가 아니라 선행을 배우라고 명하십니다.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는 방향입니다. 예배가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삶의 일치를 원하십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예배할 때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예배의 자리에서 결심한 것들이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사야는 교만한 인간과 그 문명의 허망함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임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2장 22절

[개역개정]

22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쉼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번역]

22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에 쉼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한 구절 묵상

이사야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믿음직스러워 보여도 사람은 결국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안심이 되고 또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 기대는 것이 편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우리의 시선과 무게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초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단단한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가 의지해온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렸던 경험이 있나요? 그 상황에 내 마음은 어떠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사람이 아닌 주님께 기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제거하시며,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함을 보시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3장 8절

[개역개정]

8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새번역]

8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한 구절 묵상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불평과 원망, 의심하는 말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쌓이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고, 그 마음은 결국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말과 행동이 다시 나의 삶을 바르게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불평, 원망, 의심)을 너무 쉽게 내뱉고 있지는 않았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삶이 주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향하게 하옵소서.

심판 이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4장 2절

[개역개정]

2 그 날에 여호와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새번역]

2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돌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싹’이라는 표현은 차갑게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작은 새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그 싹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음을 뚫고 나오는 강인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폐허처럼 느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이루실 새 일을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무너진 삶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책망하시며,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5장 20절

[개역개정]

20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새번역]

20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한 구절 묵상

선과 악이 뒤바뀌는 일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반복된 일상에서 서서히 자라난 결과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는 것도 단순한 판단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이 이미 우리 안에서 ‘정상’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선택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선택은 점점 흐려지고 모호해집니다. 회복은 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하게 여겨온 기준이 비추어지고 재정렬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 삶에서 말씀으로 재정렬해야 할, 흐려진 기준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 흐려진 기준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복음 안에서 재정렬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5:18-21, 새번역]

- 18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 19 거짓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 20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 21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쁜 것을 좋다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세상의 분위기를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비슷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무엇이 옳은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가정, 선을 선이라 말하고 악을 악이라 분별하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헷갈리거나 고민됐던 순간이 있었는지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6장 9절

[개역개정]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새번역]

9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 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 한다’ 하고 일러라.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듣지 못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는 계시의 부재가 아니라, 이미 굳어진 마음의 상태에 대한 선언입니다.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익숙함에 머물 때, 우리는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깨달음은 단순한 이해나 지식의 축적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굳은 내면을 흔드실 때 비로소 시작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들은 말씀 앞에 무너지고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익숙한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거룩하신 주님. 익숙함 속에 머물러 무감각해진 저의 영혼을 깨우시고, 말씀 앞에 다시 떨림으로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두려움 속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표징을 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촉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7장 4절

[개역개정]

4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깥이 그루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새번역]

4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지깥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한 구절 묵상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은 남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이 그의 마음을 흔들 때 이사야는 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들의 분노는 아궁이 불을 피우다 남은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흔들었던 두려움의 실체가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지금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바람’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두려움에 흔들리는 순간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백성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8장 10절

[개역개정]

10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새번역]

10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한 구절 묵상

이스라엘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앓수르를 선택합니다. 앓수르는 당시 이스라엘을 위한 가장 최선의 계획이자 전략이었습니다. 앓수르에는 많은 군사력, 철저한 준비,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획은 끝내 실패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계획과 전략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한 순간, 실패하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의 계획과 전략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계획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사야는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오실 메시아, 즉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한 아기에 대해 예언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9장 6절

[개역개정]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새번역]

6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이사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선포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연약한 아기가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내 삶의 평강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 삶의 영역 중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붙들고 있었던 거짓 평강을 내려놓고, 참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통치권을 맡기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화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나 교만해진 앗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10장 20절

[개역개정]

20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새번역]

20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겨레 가운데서 살아 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에 앗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앗수르는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남은 자들은 진실로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온 후에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만 붙들다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곤 합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앗수르'는 무엇인가요? 진솔하게 적어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해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강한 자가 아니라 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7/11
토

우리가 꿈꾸는 세상

오늘의 본문 | 이사야 11장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메시아를 예언하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뤄질 완전한 평화와 회복의 세상을 그립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11장 6절

[개역개정]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새번역]

6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한 구절 묵상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집어삼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을 뒤집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은 이 하나님의 법칙을 구체화시킨 결과물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약속을 붙든 사람은 실제 삶의 영역에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미 마음 깊숙이 심어져 있기에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의 완전한 평화를 꿈꾸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용기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 회복된 이스라엘이 드릴 감사의 찬양이 무엇일지 예언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12장 2-3절

[개역개정]

- 2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
 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새번역]

- 2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3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을 것이다.

한 구절 묵상

두려움 없이 사는 것, 누구나 바라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 비결을 단순하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심이라.”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졌기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두려운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터져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엄습하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요즘 가장 두렵고 흔들리는 내 삶의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먼저 붙들고 있는지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12:1-3, 새번역]

- 1 그 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에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2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 3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을 것이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노여움을 거두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노래가 되어 주시며,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작아지고 우리 마음에는 다시 찬양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도 오늘 각자의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봅시다. 그리고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구원이십니다.”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1 한 구절 말씀 나눔

- 요즘 마음이 무겁거나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함께 고백해 보세요.

2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두려움이 먼저 오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7/13
월

우리의 자화상

오늘의 본문 | 이사야 13-24장

이사야는 앗수르의 침공이라는 위기 앞에서 회개 대신 현실 도피를 선택한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탄식을 전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22장 12-13절

[개역개정]

- 12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13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새번역]

- 12 그 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13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한 구절 묵상**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애통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울며 회개하는 대신 잔치를 벌입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영적 감각의 마비이자 소망을 잃어버린 무기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무감각하고 공허한 빈자리를 고기와 포도주로 채웁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고발하는 예루살렘의 자화상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삶의 위기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순간이 있지 않나요? 그때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웠는지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위기 앞에서 다른 것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7/14
화

요새, 피난처, 그늘

오늘의 본문 | 이사야 25장

이사야는 환난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시며, 장차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죽음을 멸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25장 4절

[개역개정]

4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새번역]

4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땀과 열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한 구절 묵상**

이사야는 하나님을 요새, 피난처, 그늘이라는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거센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요새, 폭풍 속에서 숨을 수 있는 피난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그늘.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찾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환난 속에서도 저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7/15
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임하는 평강

오늘의 본문 | 이사야 26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평강을 노래하며,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부활 약속과 열방을 심판하실 주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26장 3절

[개역개정]

³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새번역]

³ 주님,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묵상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단단히 붙들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견고함은 스스로 강함이 아닌,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린 상태입니다. 마치 항구에 닻이 깊이 붙들려 있을 때, 거센 풍랑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면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이 평강은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깊은 안정입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중심을 내어 드립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평강으로 저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다루시되, 결국 우상을 제거하여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27장 9절

[개역개정]

9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헛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새번역]

9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고통을 줄이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의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근원을 끊어내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픔과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제단의 돌이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려는 사랑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 안에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할 죄악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7/17
금

이미 두신 기초

오늘의 본문 | 이사야 28장

하나님께서 교만과 자기 확신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28장 16절

[개역개정]

1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새번역]

16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이미 ‘시험한 돌’을 시온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초이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이 흔들릴 때 불안을 느끼고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마련해 주십니다. 무너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견고한 기춧돌 위에 놓인 인생은 다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이미 두신 그 기초를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이미 두신 기초를 신뢰하기보다, 상황에 더 반응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상황과 흔들림 속에서도 다급해하지 않고 주님이 두신 기초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과 영적 무지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기다림과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29장 1-2절

[개역개정]

- 1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 2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새번역]

- 1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엘아, 아리엘아,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 2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네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아리엘’은 ‘번제단’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예루살렘을 향한 이사야의 이 간절한 외침에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애곡하는 장례의 슬픔과 같이 예배의 죽음을 애곡하는 슬픔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배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예배의 순서와 형식만 남지는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는 감격과 기쁨은 무엇인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사라진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7/19
주일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의 본문 | 이사야 30장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를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30장 18절

[개역개정]

18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새번역]

18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한 구절 묵상**

기다림은 신뢰를 전제합니다. 올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위협 속에서 애굽을 기다렸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애굽의 도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인가요.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고난 속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30:18-21, 새번역]

- 18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붙잡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주님을 기
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 19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살려 달
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 20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
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네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볼 것이다.
- 21 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애굽을 찾았습니다. 강한 나라에 기대
면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
리가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할 때도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
답하시고, 길을 잃을 때도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가족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보다 검색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족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탓하지 않고 은혜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이번 주에는
가족이 함께 먼저 기도해 봅시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
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
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7/20
월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오늘의 본문 | 이사야 31장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31장 1절

[개역개정]

1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새번역]

1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한 구절 묵상

유다 백성들은 앗수르라는 위협 앞에서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분명 애굽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확신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화'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수단을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의 실력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붙드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오늘 내가 마주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떠올린 애굽의 병거(물질, 경험, 사람 등)는 무엇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7/21
화

회복시키시는 성령님

오늘의 본문 | 이사야 32장

장차 임할 의로운 통치자와 그로 인해 변화될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한 진정한 회복을 노래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32장 15절

[개역개정]

15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새번역]

15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 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진정한 변화는 성령이 임할 때 시작됩니다. 말씀에서 영을 '부어 준다'는 것은 메마른 땅이 흠뻑 젖을 만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가뭄과도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힘은 내 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단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메마른 우리의 삶에 풍성한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의 삶에서 성령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삶의 메마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밭이 되는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루살렘 포위가 임박한 절망의 자리에서 이사야는 다가올 미래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33장 18절

[개역개정]

18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새번역]

18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렷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 총독, 과한 세금, 끝없는 정보 추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묻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압도하는 고통들이 이미 사라졌기에 ‘어디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이 순간에 갇혀 살게 되지만 신앙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현재를 재해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본다면 무엇이 달라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지 생각해 보고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시간 안에 갇힌 제 눈이 아닌 영원을 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사야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억눌리고 억울한 자들을 위해 친히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예언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34장 8절

[개역개정]

8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새번역]

8 이 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한 구절 묵상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우리를 갇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전제합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의가 아니라 정의가, 부도덕이 아니라 도덕이, 악이 아니라 선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보복의 날’은 복수심에 불타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굽어진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정의를 드러냅니다. 모든 억울함을 반드시 풀립니다. 다만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날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 억울함을 안고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아직 풀리지 않은 억울함이나 불의 앞에서 지쳐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풀리지 않은 억울함을 반드시 바로잡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억울함에서 자유로운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7/24
금

서로 격려하라

오늘의 본문 | 이사야 35장

하나님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로하시며, 구속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35장 3-4절

[개역개정]

- 3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새번역]

- 3 너희는 맥푼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4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한 구절 묵상**

앗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앞까지 진군해 왔을 때,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거센 위협 앞에 마음이 무너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로가 입을 열어 격려의 말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두려움도 말로 퍼지지만, 믿음도 말로 흘러갑니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신다!” 이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 역시 두려움에 떨릴 때라도, 믿음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두려움 속에 있는 이가 있다면, 믿음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오늘 내가 격려의 말을 건네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말을 건네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7/25
토

네가 무엇을 믿느냐

오늘의 본문 | 이사야 36장

앗수르의 위협 앞에서 예루살렘은 큰 위기에 놓입니다. 랍사게는 일부러 유다 방언으로 조롱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항복을 유도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36장 4-5절

[개역개정]

- 4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이 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나
5 내가 말하노니 네가 죽히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 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새번역]

- 4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앗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 하나?
5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한 구절 묵상**

랍사게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네 상황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사실 그 말은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분명했고, 의지하던 것들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크게 들리고, 마음이 더 크게 요동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현실적인 목소리 앞에서 더 흔들리게 됩니다. 통장 잔고 앞에서, 진단서 앞에서,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같은 질문이 들려옵니다. “네가 무엇을 믿느냐?” 그 물음에 우리는 무엇이든 답할 수 있습니까?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요즘 나의 믿음을 흔드는 현실적인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시대의 가치와 상식을 거슬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7/26
주일

경계 밖의 싸움

오늘의 본문 | 이사야 37장

앗수르의 공격 속에서 올려드린 히스기야 왕의 기도예,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37장 33절

[개역개정]

3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홍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새번역]

33 그러므로 앗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도 한 번 쏘아 보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위험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보다 먼저 ‘결과’를 상상하게 하고, 이미 무너진 것처럼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앗수르 왕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마음으로 두려움에 먼저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이 실체가 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던 많은 일들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닿기 전에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멈춰진 은혜의 결과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상황을 이미 벌어진 일처럼 확정해 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새롭게 창조되고 빚어지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37:33-35, 새번역]

- 33 그러므로 앗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도 한 번 쏘아 보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 34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이 도성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 35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앗수르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리라” 위협은 컸지만,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고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두렵게 느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때 우리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 주셨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평안을 누리게 해 주세요.

7/27
월

던지신 것들 위에 서 있지 않기를

오늘의 본문 | 이사야 38장

죽을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예, 하나님께서는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며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 이사야 38장 17절

[개역개정]

17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새번역]

17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한 구절 묵상

히스기야는 자신의 고통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고통을 미화하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사라지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돌이키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죄를 더 이상 기준 삼지 않으시며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고통의 시간은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과 미숙함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시간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께서 지난 나의 죄들을 이미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겪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타인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7/28
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오늘의 본문 | 이사야 39장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모든 부를 자랑한 교만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이사야 39장 2절

[개역개정]

²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새번역]

²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 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 주었다.

한 구절 묵상

죽을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의 회복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에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바벨론 왕의 사신에게 자신의 모든 창고를 열어 모든 소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 일로 인해 모든 소유를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신의 기쁨에 취해 자신을 자랑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경험했는지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 삶에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 은혜가 나를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중 어느 것에 사용되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삶에 허락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7/29
수

여호와여 주는

오늘의 본문 | 시편 3편

다윗은 수많은 대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3편 3-4절

[개역개정]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새번역]

3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4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셀라)

한 구절 묵상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아들의 배신과 대적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동물이 내는 으르렁거리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와 같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에는 그의 괴로움과 울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패이시요, 영광이시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할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노래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4편 8절

[개역개정]

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새번역]

8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묵상

다윗은 큰 위기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자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환경의 회복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에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요즘 나의 밤을 뒤척이게 만드는 불안이나 염려는 무엇입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눈앞의 상황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렸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7/31
금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 | 시편 5편

다윗은 아침마다 주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며,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5편 4-5절

[개역개정]

- 4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새번역]

- 4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5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어둠도 함께 할 수 없는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숨겨진 죄와 교만함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의 교만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이나 행동, 생각 중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교만을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시인은 극도의 고통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6편 6-7절

[개역개정]

6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 나이다

7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 나이다

[새번역]

6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7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쌀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한 구절 묵상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잘 정돈된 언어, 차분하고 경건한 모습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울화가 치밀 때 기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되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다릅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탄식하다 지쳐 쓰러집니다. 여기에 기도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 뿐이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울화 속 탄식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망설여졌던 감정이 있지 않나요? 오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며 대답하실지 묵상해 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정제되지 않은 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게 하옵소서.

다윗은 억울한 누명과 적들의 위협 앞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7편 10절

[개역개정]

¹⁰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새번역]

¹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이시다.

한 구절 묵상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시편을 쓸 수 없습니다. 정직하려고 애썼지만 많은 실수가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올바르지 않음을 직면하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외면이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꾸며진 경건이 아닌 정직한 내면을 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최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부끄럽거나 두려웠던 내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오늘 그것을 있는 그대로 꺼내어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꾸며진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시편 7:9-11, 새번역]

- 9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을 낱알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 10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는 분이시다.
- 11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공격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과 양심을 살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정직한 사람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족도 억울하거나 오해받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지켜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억울하거나 오해받아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광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8편 4절

[개역개정]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새번역]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한 구절 묵상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것은 허무의 탄식이 아니라, 경탄입니다. 광대한 우주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발견한 자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터뜨리는 감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시선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한 가지로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보다 나를 더 가까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작고 연약한 저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구원을 찬양하는 시로서, 시인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9편 1절

[개역개정]

1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새번역]

1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쉬임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한 구절 묵상

‘전파하다’는 원어로 세어서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어가며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는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이한 일을 전하는 삶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씩 떠올리고, 그것을 말하는 삶입니다. 잊혀진 은혜를 다시 꺼내어 바라볼 때, 그 기억들이 모여 감사가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닫혀 있던 길이 열리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누군가 함께 있었던 시간들. 오늘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세어보며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하나님이 지난 내 삶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은 무엇이 있었나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잊고 있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이한 일을 감사하며 주변에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인은 악인들의 횡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이뤄질 것을 신뢰하며, 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10편 1-2절

[개역개정]

- 1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죄에 빠지게 하소서

[새번역]

- 1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2 악인이 으스대며 악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 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 들게 해주십시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이 짙은 어둠 속에 숨어 계신 것만 같은 순간, 우리는 깊은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분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절망보다 깊고 단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숨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구원의 때를 인내하며 치열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적 개입의 순간을 건져 올리는 믿음의 결기가 필요합니다. 눈앞의 현실에 갇혀 낙심하는 대신, 숨어 계신 하나님의 붙어준 눈시울과 그분의 일하심을 꿰뚫어 보는 믿음의 시선을 붙들어야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들을 나에게 선포하며 적어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시인은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도피하라는 조언에 맞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확신으로 응답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11편 3-4절

[개역개정]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4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새번역]

3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4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한 구절 묵상

시간 속을 살아가는 인생은 유한하기에 불확실함을 숙명처럼 안고 걸어갑니다. 우리가 딛고 선 삶의 터가 흔들리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한 채 방향을 잃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인생 터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들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해 오 래도록 머물러 있는 그분의 깊은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유한한 시간 속으로 건네신 그 시선은, 요동치는 현실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걸음을 지탱하는 토대가 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의 시선에 기대어, 오늘 내가 다시 내딛어야 할 견고한 믿음의 걸음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주님, 저의 시선이 흔들리는 인생 터전이 아닌, 변함없으신 주님께게만 고정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다윗은 거짓과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12편 1절

[개역개정]

1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 지나이다

[새번역]

1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구절 묵상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높아지고, 경건한 사람이 낮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높아질 때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거짓과 아침의 말을 하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높아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을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순간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악한 사람이 높아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13편 1절

[개역개정]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새번역]

1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한 구절 묵상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의 끝이 언제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은 출구가 없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답답함과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조차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다윗 역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고통 속 두려움은 끝을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라는 질문을 넘어 의지할 대상을 바라볼때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내 삶에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내 마음과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며 부패한 길을 가지만, 시인은 하늘에서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14편 2-3절

[개역개정]

- 2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새번역]

- 2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3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빛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살피시며, 마음 다해 주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보다 자기 욕심에 따라 겉길로 치우치기 쉬운 존재입니다. 신앙은 내가 선하다는 착각을 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께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살피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리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시편 14:1-3 새번역]

- 1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꺾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 2 주님께서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 3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빛나가서 하나같이 꺾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선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가족도 완벽한 가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은혜로 불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으로 살아가 봅시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우리 가족이 스스로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해 주세요.

8/10
월

타인의 아픔을 이용하지 않는 삶

오늘의 본문 | 시편 15편

시인은 주의 성막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갖춰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노래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15편 5절

[개역개정]

5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새번역]

5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일상의 경제 생활 속에서도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아픔을 이용하지 않고, 정직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이익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합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기보다 그의 아픔을 감싸주고 하나님께 인정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잠시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시인은 하나님만이 참된 기업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다른 신을 좇는 것이 결국 괴로움을 더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16편 4절

[개역개정]

4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새번역]

4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빛은 제삿술을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한 구절 묵상

우상은 영원할 것 같은 약속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충분할 것이라고. 이것을 이루면 마침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돌변합니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충만한 관계, 만족감 넘치는 성취, 건강한 몸과 마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무엇으로도 충족되지 못하는 마음, 불안만 남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욱 고통스러워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내 '피의 전제'를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자기착취의 굴레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최근 나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소진되고 있나요? 나는 왜 그것 때문에 소진되고 있는 것일까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안에 거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17편 15절

[개역개정]

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새번역]

15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뵈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한 구절 묵상

다윗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는지.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의 형통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풍요가 넘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뵈겠습니다.” 결과가 전부인 시대에 이 고백은 도발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풍요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정직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자유를 소망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정직의 기쁨을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최근 내 삶에서 풍요와 정직함 사이에서 갈등해 본 경험이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정직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18편 1-2절

[개역개정]

-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 2 여호와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새번역]

- 1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 2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한 구절 묵상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반석, 요새, 방패, 산성. 그런데 그 모든 이름 앞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이 짧은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꾸어 놓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오랜 시간이 빚어낸 말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 몸을 숨겨야 했던 굴속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대신,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지식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에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깊게 다가왔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지금은 그 고백이 얼마나 가깝게 와닿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을 넘어 삶으로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두 방식, 곧 창조 세계를 통한 계시와 말씀을 통한 계시를 노래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시편 19편 1-2절

[개역개정]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새번역]

1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 준다.

2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 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 준다.

한 구절 묵상

하늘은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광야에서, 밤하늘 아래 홀로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합니다. 하늘은 단 한순간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멈추는 자에게, 올려다보는 자에게만 전해집니다.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바쁜 하루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늘 땅에만 있기에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잠시 걸음을 늦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그리고 여전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늘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듣고 있느냐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최근 하늘이나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혹시 최근에는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하늘과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분주함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회복의 약속을 함께 보여줍니다.

오늘의 한 구절 호세아 1장 10절

[개역개정]

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새번역]

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 보거나 세어 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한 구절 묵상

반전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 관계가 끊어진 자리, 가장 낮은 이름이 붙었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회복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아픈 그 자리에서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곳'은 어디입니까? 비록 무너진 자리라 해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부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요즘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들었던 적은 언제였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끝났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빈 들로 이끄시며 다시 사랑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호세아 2장 14-15절

[개역개정]

- 14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새번역]

- 14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꺾어서, 빈 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 주겠다.
15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 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인생에 찾아오는 ‘빈 들의 시간’은 모든 것을 잃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움켜쥔 것들을 내려놓으며, 끝까지 붙들어야 할 단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순간의 욕망이 아닌 영원의 소망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붙듦이 저주의 공간이었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빛어냅니다. 빈 들은 상실의 자리가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중에 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움켜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호세아 2:14-16, 새번역]

- 14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 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
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16 그 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
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서 말로 위로하겠
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친 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시
작하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가정도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마음이 멀어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로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우리 가족 안에서 다시 다정하게 말하고, 회복을 시작해야 할 관계나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며, 다정한 말로 회
복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8/17
월

용납 받은 실패

오늘의 본문 | 호세아 3장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행한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며, 조건 없는 사랑과 회복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한 구절 호세아 3장 1-2절

[개역개정]

-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 2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새번역]

- 1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 2 그래서 나는 은 열다섯 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한 구절 묵상

호세아는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받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이 명령은 무모한 요구였지만, 사랑 앞에서는 호세아를 향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호세아 또한 먼저 용납 받은 자였습니다. 정답을 벗어난 실패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게 합니다. 그러나 용납 받은 실패는 절망을 딛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삶을 다시 걷게 하는 힘은 정답이 아니라 용납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는 나 자신을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의 눈’으로 용납하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어느 순간에도 용납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만큼 품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타락한 제사장과 백성들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책망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호세아 4장 12절

[개역개정]

12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새번역]

12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침에 흘러서 결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빛나간다.

한 구절 묵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의 음행 때문입니다. 호세아를 떠난 고멜과 같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신부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라는 영적 음행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어디서 해답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막대기에 불과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묻고 그분의 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묻고 답을 구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묻고 답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을 숨기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호세아 5장 13절

[개역개정]

13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새번역]

13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앗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한 구절 묵상

상처의 회복을 위한 과정은 '인식-방법-해결' 세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처는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죄로 인한 영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앗수르 야렙왕에게 사람을 보내지만 자신들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처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앗수르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곁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갈 때에만 해결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상처를 가져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나의 상처는 무엇인가요?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의 상처를 바로 보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8/20
목

회복의 시작

오늘의 본문 | 호세아 6장

호세아는 심판 중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호세아 6장 1절

[개역개정]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새번역]

1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프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회복의 시작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치시나, 싸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최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나 연단으로 느껴지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낮게하시고 싸매어 주실 회복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8/21
금

얼굴에 드러난 교만

오늘의 본문 | 호세아 7장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죄악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드러난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호세아 7장 10절

[개역개정]

10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새번역]

10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한 구절 묵상**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은 단지 고난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장에 닥친 고난이 어려움이라 할 수 있으나, 진짜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교만한 마음입니다. 말씀은 이 교만이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가득하다며 그들의 영적 무감각함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돌아보게 하는 신호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얼굴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고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에 교만을 제하여 주옵소서!”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끝까지 나를 증명하려 했던 교만한 모습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나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고난 앞에서 주님을 찾지 않았던 저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호세아 8장 13절

[개역개정]

13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새번역]

13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한 구절 묵상

호세아가 고발하는 것은 제사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 제사에서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이 아니라 고기였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의도가 어느새 희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가 조용히 타락하는 방식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서서히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전히 제단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사역, 예배, 공동체 등 지금 내 신앙생활에서 최초의 의도가 가장 많이 희석된 자리는 어디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형식 안에서 잃어버린 최초의 마음을 오늘 다시 찾게 하옵소서.

8/23
주일

사랑하면 닮는다

오늘의 본문 | 호세아 9장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바알을 좇아 타락한 것을 탄식하며 이스라엘의 자화상을 고발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호세아 9장 10절

[개역개정]

10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새번역]

10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 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브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한 구절 묵상**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에 담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아침에 우상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먼저 그곳으로 향했고 마음이 뒤따랐으며 결국 우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추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에 몸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그 관심사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호세아 9:10-13, 새번역]

- 10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
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 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
다. 그러나 바알브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
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 11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
는 일도 없을 것이다.
- 12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 13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묵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다”고 말씀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기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이 아
닌 다른 것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았지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
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잊고, 다른 것들을 더 붙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가족 안에서 요즘 멀어진 것 같거나, 미처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말을 한마디씩 전해 보세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 가족도 서로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사랑을 전하게 해 주세요.

8/24
월

풍요의 역설

오늘의 본문 | 호세아 10장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하나님은 그들이 쌓아올린 제단과 주상이 무너질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호세아 10장 1-2절

[개역개정]

- 1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 2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새번역]

- 1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 2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한 구절 묵상**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풍성할수록 제단도 많아졌고, 주상을 치장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번영이 예배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풍요의 역설입니다.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손에 열매가 가득 찰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시험이라 여기지만, 어쩌면 더 깊은 시험은 풍요로울 때 찾아옵니다.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열매는 하나님을 더 찾게 하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어려울 때와 형통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받은 열매에 시선을 빼앗겨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풍요로울수록 더 낮아지고 더 깊이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배반한 백성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심판의 경고가 이어지지만, 그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호세아 11장 8절

[개역개정]

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새번역]

8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한 구절 묵상

논리대로라면 심판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선언하시던 하나님이 스스로 멈추십니다. ‘긍휼이 불붙듯 한다’는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억누를 수 없이 타오르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왔다고, 이제는 돌아가기 늦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긍휼이 불붙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힘보다, 우리를 향해 먼저 타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그 시간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논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놓지 않고 다시 붙드시는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지난 과거의 사건들을 언급하시며, 북왕국 에브라임의 거짓과 부패를 질책하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호세아 12장 1-2절

[개역개정]

- 1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 2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새번역]

- 1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앗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 2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께서서는 에브라임의 모든 행함을 ‘바람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무엇을 먹는지도 몰랐고, 그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채우지 못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충분히 채워졌다고 여기는 생각을 의심하십시오. 바르지 않은 영적 허기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바람을 추구하는 공허의 삶으로 표류하게 합니다. 헛된 포만감을 거두고,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구하며 참된 만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내 안에 ‘이미 충분하다’고 여기는 헛된 영적 포만감이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헛된 포만감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만족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상숭배와 권력을 의지하는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이 드러납니다.

오늘의 한 구절 호세아 13장 2절

[개역개정]

²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드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새번역]

² 그런데도 그들은 거둬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재주껏 만든 은 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이는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한 구절 묵상

우상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정교한 욕망을 따라 세워집니다. 나의 욕망이 눈에 보이는 실체에 담긴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과 수고가,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변질될 때 나는 결국 내가 만든 것에 입 맞추는 자가 됩니다. 치열한 나의 삶의 행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나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입니까? 나의 생각과 행동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소망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로부터 출발한 우상의 행로를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망의 길을 걷는 정직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품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향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의 한 구절 호세아 14장 2절

[개역개정]

²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새번역]

²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송아지와 같은 값비싼 제물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다시는 앗수르와 그의 군마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무언가 대단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회개와 결단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과 우리가 만들었던 수많은 신들을 떠나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하나님께 드릴 입술의 열매(회개와 결단)는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의 죄를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8/29
토

전해야 할 실패의 교훈

오늘의 본문 | 요엘 1장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금식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요엘 1장 3절

[개역개정]

3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새번역]

3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한 구절 묵상

요엘 선지자가 자녀와 그 후세에 말하라고 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의 슬픔이었습니다. 지우고 싶은 심판의 역사를 왜 자녀세대에 남기라고 말합니까? 다음세대가 같은 실수와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재앙을 당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농부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농부와 같은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실패가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②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전해야 할 나의 실패와 실수는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회복의 재료가 되어, 다음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을 경고하며, 이제라도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와 간절히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요엘 2장 32절

[개역개정]

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 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새번역]

32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 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구절 묵상

구원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와 의 이름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처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살 소망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다른 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와 의 이름을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할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를 때 구원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눈앞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견고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한 구절 가정예배



우리가족 말씀 나눔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며 성경을 읽어주세요.

[요엘 2:30-32, 새번역]

- 30 그 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31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32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 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목상]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요엘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에도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두렵고 불안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붙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은 오직 주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가족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운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걱정만 붙들지 말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 봅시다.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나눔 질문

각자의 생각과 감사의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① 한 구절 말씀 나눔

- 우리 가족이 두렵거나 불안할 때, 걱정보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② 온 가족 감사 나눔

-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서로를 향한 축복기도

받은 은혜와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두려울 때에도 우리 가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해 주세요.

요엘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누리게 될 영원한 회복과 복을 약속하며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요엘 3장 19-20절

[개역개정]

- 19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20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새번역]

- 19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20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은 전에 자신의 백성들이 피 흘림을 당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괴롭게 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권세는 반드시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대적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묵상노트

아래 질문을 활용하여 묵상해 보세요.

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혹은 감동은 무엇인가요?

.....

.....

.....

❷ 세상적인 힘이나 환경 때문에 내 삶이 '황무지'처럼 느껴지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

.....

.....



심정이 통하는 기도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해 보세요.

세상의 화려함은 결국 황폐해지나, 제 삶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일 말씀 메모











